

# 이 세상에 학문도 없지만 종교 또한 없다

학문이라는 것은 실체를 바로 말하고 바로 아는 것인데 세상의 학문은 실체를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는 사람 자체가 신(神)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지존자가 곧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원자 하나 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고 각각의 원자 속에는 핵이 있고 또 핵 속에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 중성자의 빛은 태양 빛보다도 몇 억천 배 빠른 빛이요, 투과력 또한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의 물질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또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이원용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중성자의 빛에 관해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성자의 빛은 백억 광년의 남의 두께를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성자의 빛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무한대의 영이요, 영원한 영이어서 저항력을 전혀 받지 않는 빛입니다. 남의 두께가 백억 광년의 몇억 배보다도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지금부터 육천년 전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해

이 세상에는 철단과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성의 속성이 있는 영이므로 영원무궁토록 저항력을 받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부터 육천년 전에 마귀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했다'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안 쓰여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격양유록에는 자세히 쓰여 있는데,

이는 천손민족인 우리의 조상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헤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은 바로 하늘나라인 바 그 에덴동산에는 영생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만 살 수 있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볼 때 최초의 아담과 헤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천국의 구비조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야 천국이니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나 사는 곳이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알아야 면장(免葬)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3:5)'고 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라는 말에는 인간이 분신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녕 태초의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헤와의 주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있었으나 선악과가 되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마귀 육에다가 뒤 놓고 마귀가 주체 영이 되는 순간 바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역설을 성경에 써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감추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인간을 흠으로 만들었다고 영터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사34:16)' 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짝이 없는 말들은 다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



구세주 조희성님

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사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맞추고 선별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지구 땅에는 한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학문도 없지만 종교 또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값으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죽는 원인이 되는 죄의 정체를 모르고, 죽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니 죽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는 어둠의 신인 마귀가 정령해 온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면장은 시골 면장이 아니고 '면할 면(免)'에다 '장례 장(葬)'으로써 '알아야 장례를 면한다' 즉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무식한 세상이라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사람 자체가 신이요 하나님의 자식

사람 자체가 신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쓰여 있는 데도 그것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자녀니라(신14:1)'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나라(요한 일서 3:2)' 이때 너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와 자녀인데 여호와와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께 없다고 하여 '예수는 독생자' 운운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욕심이 앙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약 1:1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인데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됩니다. 원죄에서 줄기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는 곧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어떤 이는 사과다 복숭아다 하고 다루고 있지만 성경말은 영적(靈的) 말입니다. 영적 과일이며, 영적 과일이니 곧 영입니다. 영은 영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 까 죽이는 영, 사망의 속성이 있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는 마귀 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체영이 마귀니까 사람으로 전락한 것인바 주체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흠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흠으로 살이나 눈동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흠으로 머리카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헤와를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면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다음 흠을 빚어서 왜 또 다른 아담과 헤와를 안 만들었습니까?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다시 흠을 빚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왜 여자더러 그 고통스런 해산의 수고를 시키겠습니까?

###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신 고로 이슬성신 내리

이러한 깊은 사정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고로 이 사람에게 계시는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이슬같은 만나가 내렸습다.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해도 욕심이 난 사람들이 많이 퍼가자 만나가 썩어서 못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나를 하루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사십 년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구세주였습니다.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행3:22-23)'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구세주로서 모세와 같이 이슬 만나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다. 이슬성신에 대하여는 호세아서 14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긴자>입니다. '이긴자에게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이긴자에게 내리는데 이슬이 되어 내리는 저 이긴자가 백합화같이 핀다고도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구주는 산곡의 백합명량한 새벽별, 만인 위에 피어나시는 줄세라고 했듯이 백합화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명량한 새벽별>이라고도 했습니다. 명량하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며 빛나는 뜻도 되므로 빛날 희(熙)에 별 성(星)을 가진 자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처럼 요한계시록 2장 28절로부터 28절에도 '새벽별 즉 밝고 빛나는 별의 이름을 구세주가 가지고 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 미륵진경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미륵진경에는 이 사람의 성까지 써 있습니다. 그것은 <사죄천조 구중생(救罪天曹 求衆生)>이라는 대목입니다. 바로 '하늘의 조(曹)씨가 중생들의 죄를 사해 주고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미륵불의 이름은 명성(明星)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밝을 명(明)'에 '별성(星)'으로 밝은 별, 즉 새벽 별입니다.

이렇게 경전은 정확하게 구세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하여 종교가 아닌 것을 종교로 잘못 믿고 있으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신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세상인고로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부제단(2023년 7월 13-14일) 예배 말씀

동영상 말씀 재시청  
\* <https://www.victor.or.kr/sub401>

###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 (12) 성막 중심의 40년 광야생활

하나님의 산의 동쪽에 위치한 광야의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였습니다. 성막의 동문(출입문)에 들어가면 바깥뜰에 번제단이 있고 이어서 손발을 깨끗이 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첫째 휘장 뒤에 성소와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상, 금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어 풍작을 이 1 「진설병상(陳設餅床)」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열두 명의 떡을 진설하는 떡상을 말하며, 「등잔대」란 일곱 금 촛대로서 순수한 감람유를 데워 맞은 편 떡상을 비추었습니다.

### 《6장 40년의 광야생활》

## (12) 성막 중심의 40년 광야생활



성막의 구조

루게 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또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보호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미디안에 당도한 지 2년째 되었을 때, 수만 명의 집족과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미디안(아라비아 반도)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광야생활 초기에는 대열 일탈로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40년의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구가 불어나서 출애굽 당시의 인구수로 채워졌습니다.

민수가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자손을 일으키고 너희를 불어나게 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네 명의 아들들도 기름부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식을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 영화롭게 하고, 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그 거룩한 예복을 보면 색깔이 다른 열두 보석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아굽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판결 흉패를 만들어 가슴에 붙이고,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쓰는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부착하였습니다.

- 레위기 8장
-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 15절: 모세가 잡고 그 띠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띠를 제단의 네 귀퉁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띠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장자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70인의 장로와 함께, 모세를 좇아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뵈고 화목제를 지낸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답과 아비후는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그들은 8일째에 대제사장 아론이 주관하는 첫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제사에는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을 준비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숫양을 준비하



거룩한 예복을 착용한 아론

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송아지와 숫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숫양을 규례대로 바쳤습니다. 또 곡식제물을 가져다가 한 움큼 가득히 제단에 올려놓고 아침 번제물에 보태어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았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